

남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2007년 6월

이 메시지들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종교 일치주의를 위하여 모든 백성과 민족에게 보내집니다.

"하나가 되어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들 때문에 너희가 서로 분열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라." (성모님, 6/16/07)

“거룩한 사랑의 종 선교회”는 교회 일치주의를 위한 보편된 평신도 사도 모임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서술하는 에큐미니즘(Ecumenism), 교회 일치주의

제 1 편(Part One) 신앙고백

제 2 부(Section 2) 그리스도교 신앙고백

제 2 장(Chapter 2)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제 9 절(Article 9)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제 3 단락(Paragraph 3)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

I. 교회는 하나이다 - “교회일치의 거룩한 신비”

821 - 공동 기도.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6월 1일/금요일 목주기도 모임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께서 성심을 드러내시며 여기 계십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태어난 너희의 예수다." 두 분께서는 여기 계신 신부님들께 인사하시며, 모인 이들을 미소로 맞이하십니다.

예수님: "내 형제자매들아, 오늘 밤 겸손과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올린 너희들의 기도는 파멸로 향하던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어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다. 그러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안에서 참고 견디어라. 많은 영혼들의 운명이 너희들의 노력에 달려있다. 너희는 어떤 일에서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라. 이것은 사탄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 너희들을 그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밤, 하나 된 우리 성심의 축복으로 너희에게 강복한다."

2007년 6월 2일/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거대한 불꽃으로 오시는 성부의 성심을 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현재이다."

"나는 거룩한 성삼위와 티 없는 마리아의 성심이 합쳐진 새로운 상본의 중요한 의미를 세상의 심장부에 알리기 위하여 왔다."

"세상에서 아직 선포되지 않은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하나 남아있다. 그것은 '중재자이며, 공동 구속자이고 보호자인 마리아' 이다. 이 새로운 상본에서 보면, 이 교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 마리아의 성심은 그의 아들의 성심 안에 잠기었으며, 성령이신 그의 정배로 감싸였다. 더 나아가서, 하나 된 예수 마리아의 성심은 둘 다 영원한 현재의 불꽃인 내 성부의 성심 안에 잠기었다."

"티 없는 마리아 성심은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가는 통로로서 - 신성한 뜻의 입구이며 - 거룩한 삼위일체 하느님은 이 길을 통하여 세상에 모든 은총들을 부여준다. 그의 아들의 신성한 성심과 하나 된 마리아는, 그녀의

성심 안에서, 인류의 그 누구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예수 수난의 모든 상처와 모욕을 겪었다. 거룩한 성삼위에게 그녀보다 더 가까이 다가갔던 인간은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가장 강력한 보호자이다."

"이 새로운 상본에 대한 교리를 세상에 알려라."

2007년 6월 4일 /성 미카엘 대천사의 진리의 방패 기도모임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으로 태어난 너희의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너희가 알다시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나는 가장 악독한 죄인과 미적지근한 이들과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독선 자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청하기 위하여 다시 왔다. 이것이 지상에 내릴 모든 재난에 대비한 해결책이고, 나는 많은 사랑과 연민의 정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나의 어머니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예'라고 대답하셨듯이, 너희들도 '예'라고 응답하여 라."

"오늘 밤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으로 너희를 강복한다."

2007년 6월 5일 /모든 나라와 모든 국가를 위한 월 메시지 (이 메시지는 몇 부분으로 나누어 줌)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께서 성심을 드러내시며 여기 계십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태어난 너희의 예수다."

예수님: "나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왔다. 거룩한 성삼위와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의 하나 된 상본이 출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너희는 쉽게 깨닫지 못한다. 세상에 이 상본이 소개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한눈에 보는 목시록을 여는 것과도 같다. 말하건대,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 상본은 그 자체가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너희는 페이지가 바뀌는 것을 잘 보고 귀를 기울여라."

"기술이 크게 진보한 이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은 발달된 통신수단과 빨라진 교통수단으로 인해 서로가 아주 가까워졌다. 이 시대처럼 국경선과 이데올로기가 도전을 받았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 사이에 사랑을 전파하려고 왔다. 그러나 사탄의 영향을 받는 다른 이들은 중오를 퍼트린다. 이것은 원수가 너희들을 끌어들이는 선과 악의 전쟁이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정해진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들 혹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서 비밀리에 행해졌지만, 이제는 모든 나라에 퍼졌다. 사탄은 현대 과학문명을 통하여 속임수의 전쟁의 불길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비유를 들어서 말하지 않겠다. 나는 이 진리들을 솔직한 언어로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정의로운 사람들이 선의 길에서 벗어날 때, 그들은 나를 전혀 몰랐던 세대보다 더욱 큰 벌을 받게 된다. 입으로만 나를 그들의 주님이며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섬기는 이들은, 정의의 심판을 불러들이게 된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 이들은, 사탄의 속임수의 희생제물이 되고 그들은 계속 신뢰에 대한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랑과 신뢰는 함께 가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나는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기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여 너희가 내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도록 초대한다. 이외의 다른 어떤 방법도 잘못된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인준을 얻기 위해 너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온다. 빛의 자녀들이 너희들은 너희들의 수가 늘어나도록 기도하여야. 이렇게 할 때, 남은 신자들의 힘이 강력해질 것이다. 너희 각자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사도적으로 부름 받은 사도이다. 태양을 입은 여인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하나 된 성심의 정화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께 저항하지 마라."

"나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의 청원들을 알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내 형제자매들아, 오늘 나는 내 승리가 너희 마음속에 받아드려질 것을 요청한다. 이 현 순간 너희 마음속에 신성한 뜻의 왕국을 내가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언제나 진리인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내 형제자매들아, 하나 된 우리 성심의 축복으로 너희에게 강복한다."

2007년 6월 6일/대중을 위한 메시지

"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태어난 너희의 예수다."

"교만의 나쁜 열매들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장님이 되는 것이다. 겸손이 부족하거나 겸손에 손상이 가면, 영혼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결점들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길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런 영혼은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들을 쉽게 본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이런 종류의 교만 때문에 연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고통을 받는다."

"각 영혼은 겸손 안에서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영적 여정에서 본성의 숨은 느낌이나 생각 등을 스스로 표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 남들을 쉽게 판단하지 마라. 너희 외모나 업적, 사회 안에서의 지위 등 그 무엇에 대해서도 너희 자신을 칭찬하지 마라. 안된다. 내가 너희를 대중에서 만들 때 만들었던 중요한 목적인 개인적인 성화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우쭐함 때문에 목표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진심으로 남들이 너희보다 더 거룩하고, 더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여라. 그리고 너희 자신이 주목의 대상이 되기를 추구하지 마라. 너희 자신이 대수롭지 않기를 바라면, 나는 너희를 내 눈에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해줄 것이다."

"세상이나 너희 자신보다는 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여라. 그러면 너희 눈에 있는 바늘들이 떨어져나가고, 너희들은 영적장님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2007년 6월 8일/사제들을 위한 두 번째 금요 묵주기도 모임

요한 비안네 성인께서 여기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형제자매들이여, 오늘 저는 사제를 모두가 자신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매 현 순간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하여, 자신에게 미치는 손실을 생각하기 보다는, 오직 한 영혼을 잃는 것에 대한 손실만을 생각하면서, 영혼들을 신성한 뜻의 왕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들이 가진 것을 송두리째 봉헌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 왔습니다."

"오늘 밤 제 사제의 축복을 보내드립니다."

2007년 6월 10일/방지를 위한 둘째 금요 묵주기도 모임

낙태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며 여기 계십니다. "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태어난 너희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모든 생명 중에 가장 나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생명들, 즉 태아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가 바로 개개인의 마음속과 정부의 심장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랑을 측정하게 된다. 낙태를 너그럽게 봐 주는 정부는 이 진리에 대한 무관심을 뒷바침하고 있다. 내 형제자매들아,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알려야 된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

"내 신성한 사랑으로 너희에게 강복한다."

2007년 6월 11일/대중을 위한 메시지

영원한 파멸

"찬미 예수님. 당신의 천사인 알라네스가 왔습니다."

"이 신비스런 여정 안에서 지옥의 불길은 자매님 주위를 온통 감싸게 되기 때문에 이 영원한 파멸인 지옥으로 옮겨갈 때는 제가 자매님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지옥에 있는 열기는 지상에 있는 어떤 불길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결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가장 심한 고통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영혼은 다시는 사랑받는다를 느낄 수 없으며 자신의 자유의지로 인하여 지옥에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불로 지져지는 고통을 겪고, 정신적으로는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감성적으로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선택했다는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이 가라앉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런 후에 거대한 불줄기가 제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 불길 속에 있는 형체들은 사람같지 않았으며, 괴물들 같이 보였습니다."

알라네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 영혼은 사랑의 법을 어긴 것에 따라서 고통을 겪습니다."

2007년 6월 11일/성 미카엘 대천사의 진리의 방패를 위한 월요기도모임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태어난 너희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오늘밤 나는 너희를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왔다. 너희들은 심판 때, 너희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그 깊이가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여라. 이 메시지를 반대하고 신성한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내 형제자매들아, 나는 너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니 이 메시지에 의한 생활을 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으로 너희를 강복한다."

2007년 6월 16일/하나된 성심의 별판에서의 자정 모임

티 없으신 성모 성심 축일 (이 메시지는 몇 분으로 나누어 줌)

복되신 어머니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인 마리아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평생 동정이며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인 - 마리아이다."

"나는 인류 역사상 참으로 종대한 이시기에 개개인의 마음에 거룩한 사랑을 심어주기 위하여 왔다. 거룩한 사랑은 인간들이 만든 모든 평화 협정들보다 더욱 오래 지속되는 승리이다. 인류가 더 크고 더 개량된 무기들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나는 너희들의 평화와 안전은 거룩한 사랑인 천상 영마의 성심 안에 놓여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준다. 내 초대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너희가 반응하는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이 단순한 해결책은 사탄의 복잡한 계획들을 무산시키기 위해 하느님께서 고안하신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가 똑같이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라는 기억을 일깨우고자 한다. 너희 모두는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무기를 들고 싸우면, 너희는 너희 친 형제자매들과 싸우는 셈이 된다. 낙태된 하나하나의 아기들이 다 너희 형제자매들이며, 너희들이 어린이들의 천진무구함을 파괴할 때, 너희는 너희들의 형제자매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정의만 기다리면서 게으르게 지내지 마라. 너희는 하느님의 정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지체하지 말고 양심들을 고쳐라."

"오늘 나는 사랑의 모후로서 그리고 위로의 딸로서 너희들이 영원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너희들을 내 아드님께로 가까이 인도해주고 거룩함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해주는 영원한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 하느님께서 너희 삶 안에서 허락하시어 너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들을 거부하지 마라. 십자가는 은총이고 구원의 길이니, 십자가들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너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하느님께서 너희 내말길을 보시어 기꺼이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은총들을 내려주신다."

"내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두려워말고 거룩한 사랑을 통해 용감해 지어라."

"내 어린 자녀들아, 나는 속임수의 아비인 사탄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을 되찾기 위해 왔다. 너희가 만약 성경을 믿는다면, '하느님을 만유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모든 계명의 요약인 거룩한 사랑을 너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 이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가 타협하는 것이고 진리가 아니다. 사탄이 너희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나는 거룩한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인 내 성심은 하느님의 뜻이다.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퍼부어 대면서 많은 진리들을 숨 막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탄은 진리를 바꾸지 못한다. 아무도 하느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마라. 언제나 매사에 선과 악의 두 가지 선택만 있으며 그 중간은 있을 수가 없다. 너희가 선을 택하면, 너희는 거룩한 사랑과 그것이 드러내는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된다. 너희는 세상에서 지위가 아무리 높고 중요하게 보이는 신분을 가진 이들이라 하더라도 진리에 어긋나는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중 많은 자녀들은, 내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감으로써 너희들의 명예나 평판을 잃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일상 생활 속에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내 사랑하는 아드님께로 인도하고 결국 너희를 승리로 이끌게 된다. 나는 너희가 오직 진리의 올바른 길을 걷기만을 바란다."

"너희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위대해지기를 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아드님은 어린이들이 같은 사람들을 구해내며 지식과 자신의 의견을 숭배하는 이들을 제거하신다.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이 위대한 기적이나 예언들을 얻기 위해 왔다면, 너희들의 동기가 너희들이 받는 은총들을 지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와 내 아드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면, 너희들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내 아드님은 오늘 밤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내 성심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하느님의 신성한 뜻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니 진리와 거룩한 사랑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너희는 지금부터 그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 아드님께서 너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너희가 항상 진리 안에서 살아야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이미 거룩한 사랑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 남들의 인준을 찾지 마라. 너희 안녕은 여기 성심 안에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을 통하여 너희를 인도하고 최후에는 영원하신 신성한 뜻 안으로 인도하고자 왔다. 그러나 사탄 역시 이 장소에 있다는 것을 슬기와 통찰력을 갖고 알아차려라. 사탄은 너희들의 믿음을 좌절시키고, 불화를 퍼트리며 내 메시지 전달자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다닌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은 결코 오류를 범하지 못한다. 너희 천상의 어머니가 너희를 세상에서 거룩한 사랑이 되어달라고 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절대로 다른 길 때문에 혼동하지 마라. 이 진리만을 위한 증거자가 되어라. 사탄은 내 티 없는 성심의 원수들이다. 너희는 그들의 지위나 외모보다는 - 그들이 하는 소리와 행동들을 보면서 사탄의 하수인들을 알아보아야 한다."

"오늘 밤 내 아드님께서 나를 다시 이 벌판으로 올 수 있게 허락하셨으며 너희들에게 나를 늘 사랑하라고 청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아드님께로 인도하게 하셨다. 하나가 되어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들 때문에 너희가 서로 분열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라."

"내 자녀들아, 내 아드님께서 내 통고의 축일에 다시 이 장소로 올 수 있게 허락하셨다. 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아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 안에서 내 아드님이 승리하시는 날이 더 빨라질 것이다."

"오늘 밤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으로 너희를 강복한다."

성모님 발현 약속
마라나타 샘, 성지
2007년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9월 15일 (고통의 성모마리아 기념일)
9월 14일(금) 밤 11시 - 묵주기도 시작
12시 자정 - 성모님 발현

2007년 6월 17일 /하나 되신 성심 발판에서의 자정 모임 하나 되신 성심 축일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너희의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나는 세상의 미래를 너희들 손에 맡긴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왔다. 그렇다. 너희들이 순간순간 거룩한 사랑을 따르거나 거부하면서 내리는 그 선택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게 된다."

"만일 너희들이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어제 저녁 내 어머니께서 하신 호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천상과 지상 사이의 심연은 더욱 넓어져서 죄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의로운 사람들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금융제도는 지금 보다 더 나빠져서 완전히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내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를 존중한다면, 너희들은 사탄이 이미 장악해서 발생한 많은 부정의들을 뒤집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들에 대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자연은 내 아버지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되며 생명은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로 귀하게 받아들여지고 세상에는 평화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인류와 맺는 새로운 계약이며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계약이다. 사랑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 그러면 내가 모든 생명과 온 우주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회복시켜줄 것을 약속한다. 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 것과 올바른 판단력은 하나이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털어 놓는다. 그러니 그런 지름길을 만들려고 노력도 하지 마라. 모든 영혼들은 내 신성한 성심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오고자 하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결점들을 정화시켜야 한다. 이 정화는 언제나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 안에서 그리고 그 성심을 통해 이루어진다. 너희가 내 어머니 성심에 대한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진리가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정화는 하느님께 영혼의 자유의지를 내맡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욕망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기도와 희생은 더 늘어나게 된다.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극복하면 할수록, 영혼의 거룩함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오늘날 경제를 안정시키는 문제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각 영혼들을 개인적인 성화로 초대한다. 너희가 개인적인 성화에 몰두할 때 너희는 우주도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원수는 너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실 개인적인 성화를 추구하는 노력은 내 승리를 앞장서서 이끌게 되며 원수를 패배시킬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내 성심을 위로하려는 너희의 노력을 두 배로 늘려라."

"지금 세상에는 진실하고 선한 사람들을 숨 막히게 하는 악마의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니 나는 완전히 악마가 지배하고 있는 최전선으로 너희를 부른다. 오로지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만이 특정한 악마적인 단체를 무너뜨리고 더 이상 그들이 뒤에 숨겨놓은 안건들을 홍보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한번 세상의 미래는 이 남은 신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세상의 운명은 작은 사람들 즉, 모든 이들을 나에게로 인도하시는 내 어머니의 성심을 공경하는 작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미래는 너희들의 숨은 사랑의 행위들과 성덕을 통해 조용히 성장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일등에 달려있다. 남은 신자들과 사랑의 순교자들, 사랑의 희생양들은 이런 영혼들로 구성된다. 인간의 눈에 대단한 자로 비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직 내 눈에 들도록 노력하여라."

"하나 된 성심의 영성은 너희를 작고 숨은 자가 되라고 초대한다. 그러나 사탄은 너희를 이 길에서 밀어내어 너희가 야심을 품도록 조장한다.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양순 해져야 한다. 너희가 나에게 청하면, 나는 너희가 어린이같이 되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들을 주겠다."

"내 형제자매들아, 나는 오늘 내 어머니가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의 교회 안에서 다시금 공경 받으시고 존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목주가 엄청난 힘을 가진 무기로서 전쟁과 낙태도 멈추게 하고 세상 심장부에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내 어머니는 너무나도 악독한 비방을 많이 받으시고 있으며 이런 그분의 성심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무척 아프다."

"내 형제자매들아, 너희가 마음 속 깊이 목주기도를 바치면 너희가 사는 동안 내 어머니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임종할 때도 어머니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심판 때 내 앞에서 너희를 변호해주시 것이며, 너희가 연옥에 떨어지면 나에게 너희에게 필요한 많은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셔서 너희를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오실 것이다. 그러나 내 형제자매들아, 너희들은 이 메시지가 주는 은총에 반드시 협조해야 된다."

"오늘 밤 나는 너희들의 청원들을 다 듣고 있다. 어떤 기도는 그 영혼을 기쁘게 해주는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밤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으로 너희에게 강복한다."

2007년 6월 17 일/하나 되신 성심 축일 - 오후 3 시 목주기도 모임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께서 여기 계십니다. 두 분께서는 두개의 성상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태어난 너희의 예수다."

예수님: "오늘 나는 천국에서 이 날을 하나 된 성심의 승리로 선포한다. 이 승리가 세상과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선포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승리는 거룩하고 신성한 메시지들이 그들 마음 속에 살아 있도록 허락하는 모든 영혼들을 포함하게 된다. 이런 영혼들은 벌써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고 내 어머니의 성심과 내 신성한 성심 그리고 성령과 내 아버지 성부의 성심과 일치하는 이들이다. 이 안에서 영원하신 성부의 뜻이 완성된다."

"이 장소에서 나는 새 예루살렘을 시작했으며, 이 계시를 통하여 내 승리를 이루어 나아간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태양을 입은 여인인 - 내 어머니의 성심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느님의 완전하신 안배에 따라 하느님의 신성한 뜻을 통하여 너희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이곳에 온 너희는 천국의 현존을 느끼고 눈으로 보았으니, 세상에 나아가 이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과 전투를 벌여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떠난 곳에서 진리를 위하여 싸우기 위해 선택을 받았다. 천국은 너희 편에 있으며 나는 사탄이 다른 이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퍼뜨리는 거짓말을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두 번째 하와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너희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변호자이신 어머니께서는 너희가 필요로 할 때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어머니께서는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도 기억하여야."

"내 승리는 오직 마지막 영혼까지 거룩한 사랑을 향해 돌아설 때 완성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폭력을 해결책으로 선택하고 테러리즘을 승리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그들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 나는 오늘 너희가 자유의지로 오직 거룩한 사랑만을 따라가도록 자유의지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왔다. 너희가 자유의지로 거룩한 사랑을 따르는 것에 내 승리가 있고 평화가 놓여 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다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내 사랑하는 미소 한 자들아, 내 아드님이 가장 긴급하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된 성심의 승리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족에서 가족으로, 그리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것이다. 승리의 사도들이 되어라. 며칠 내로 내 아드님께서는 모린을 통해 너희에게 승리의 기도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청원들을 당신의 성심으로 가져가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 된 우리 성심의 축복으로 너희에게 강복한다.'

2007년 6월 18 일/ 기도모임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태어난 너희 예수다."

"나의 형제자매들아, 오늘 밤 나는 지금 이 현 순간에 너희들 각자의 마음 안에서 내 승리가 시작되도록 허락하라고 청하고자 왔다. 너희를 위한 성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드려 내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라. 세속적 욕망을 버려라. 그러면 나의 성부의 신성한 은혜가 어떻게 너희를 보살펴 주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요컨대, 나의 어머니께서 간절히 너희 청원들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밤 나의 신성한 사랑의 축복으로 너희에게 강복한다."

2007년 6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태어난 너희 예수다."

"나는 너에게 하나 된 성심의 축일에 약속한 승리의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 왔다."

"천상의 아버지, 저 (이름)는 하나 되신 성심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저 자신이 겸손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승리가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을 통해 당신의 신성한 뜻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옵니다."
"저는 이 현 순간 당신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이 승리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당신께서 주시는 십자가들은 제 마음 안에서 당신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제게 주어진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천상의 아버지, 당신의 승리가 바로 저희들의 승리임을 일깨워주소서. 또한 이 승리는 바로 사랑의 개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세상 안에서 당신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2007년 6월 21일/대중을 위한 메시지

"나는 사람으로 태어난 너희 예수다."

"오늘 나는 너희가 사람들과 세상 안에서 하나 된 성심이 승리하는 것만을 바라며 일하고 살아달라고 부탁하려고 왔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너희는 매 현 순간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을 위해 승리를 얻는 길이며, 거룩한 사랑의 업적으로 너희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게된다."

"그러니 모든 사소한 일들 안에서 승리하여라. 이 작은 승리들은 더욱 더 위대한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사실 자신을 버리는 삶을 시작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려고 기다리는 것보다 이것이 더 어렵다."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매일을 살 때, 나의 어머니의 손길이 주시는 은총이 온갖 사소한 데까지 미치게 된다."

2007년 6월 22일/금요 묵주기도 모임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께서 성심을 드러내시며 여기 계십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태어난 너희의 예수다."

예수님: "내 형제자매들아, 오늘 밤 나는 너희가 매 현 순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고자 결심하는 것은 너희 자유의지의 동의라는 움직임이 요구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매순간 너희는 성화로 이끄는 거룩한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로 인도되는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다. 너희 마음이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항상 거룩한 사랑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은 바로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오늘 밤 하나 된 우리 성심의 축복으로 너희에게 강복한다.'

2007년 6월 24일/모든 사람들의 일치에 위한 에쿠메니컬 기도 모임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태어난 너희의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오늘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집단 파괴를 위한 무기를 쌓아올리고 폭력과 테러리즘 그리고 물자들을 몰수하여 그것들을 통제하는 일을 하면 절대로 하나로 일치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해 왔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일치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오직 하느님의 뜻인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것을 전파하여라." "나는 신성한 사랑의 축복으로 너희에게 강복한다."

2007년 6월 25일/성 미카엘 대천사의 진리의 방패 기도 모임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께서 성심을 드러내시며 여기 계십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태어난 너희 예수다."

예수님: "내 형제자매들아, 오늘 밤 나는 거룩함과 성화의 길에 있는 빛에 대해 너희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 왔다. 너희들의 구원이 바로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빛이다. 너희가 하나 된 성심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 울수록 너희들은 이 빛을 더 많이 품게 되고, 너희 마음속과 너희 세상 주변에서 강한 세력을 펼치고 있는 악에 대해 볼 수 있게 된다."

"내 형제자매들아, 하나 된 우리 성심의 축복으로 너희에게 강복한다."

2007년 6월 26일/대중을 위한 메시지

"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태어난 너희 예수다."

"오늘 나는 이 진리들을 너희가 이해하기를 바란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신성한 사랑의 빛이다. 이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빛은 인간의 마음은 물론이고 세상 안에서 어떤 악의 세력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빛의 자녀들로서, 너희는 자유의지로 어둠보다는 언제나 사랑의 빛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것이 너희 구원과 거룩함과 성화의 본질이다. 오직 너희 자유의지를 통하여 사랑의 빛이 어둠을 없앨 수 있다. 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이 순수한 사랑의 빛으로부터 영혼을 차단시킨다. 그러니 매 현 순간의 너희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아라."

2007년 6월 29일/금요일 묵주기도 모임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태어난 너희 예수다."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모두에게 미소를 지으시며 끄덕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오늘밤 나는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나를 현 순간의 주님으로 받아드리기를 허락하라고 청하고자 왔다. 천국이나 하느님에 대한 경외로움 외에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 이것이 너희가 나의 성부, 하느님의 뜻에 마음을 여는 길이다. 너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너희는 모든 것을 받을 것이다."

"나의 형제자매들아, 오늘밤 나의 신성한 사랑의 축복으로 너희에게 강복한다."

특별 기도 요청

하나 되신 성심회와 모든 선교 활동과 **한국인 순례자들을 사탄의 거짓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 미카엘 대천사 진리의 방패 기도 운동에 참가해 주십시오**

진리의 방패 기도에 참가하는 매일 다음 기도문들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1. 성 미카엘 진리의 방패 기도

"성 미카엘 대 천사시여, 당신은 저희를 보호하시는 방어자이십니다. 사탄이 진리에 대적하는 싸움에서 당신 진리의

방패로 저희를 보호하소서. 저희에게 거룩한 사랑의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당신 진리의 방패 뒤에 두시어, 선과 악 사이에서 저희들이 분명한 선택을 하게 하소서.”

Websites: www.holylove.org
www.holylovekorean.org
Prayer Center: (440) 327-8006



2. 하나 되신 성심의 짧은 묵주기도 3. 5 단(15/20 단) 묵주기도

메시지 인용:

“하나가 되어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들 때문에 너희가 서로 분열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라.”
(성모님, 2007년 6월 16일)

마라나타 샘 성지 월중 기도 모임 안내

월, 금, 토요일 저녁 7시: 정기 묵주기도 모임

월요일, 성 미카엘 대천사 진리의 방패 기도모임

매월 5일, 발현 모임

오후 12시: 십자가의 길

오후 2시: 통고의 성모님 묵상, 칠고 묵주기도

오후 3시: 하느님 자비심에 대한 5단 기도
하나 되신 성심의 짧은 묵주기도
묵주 기도 15단

둘째 주 일요일

오후 3시: 낙태중식을 위한 기도 모임

하느님 자비심에 대한 5단 기도
하나 되신 성심의 짧은 묵주기도
묵주기도 15단

(Frank Pavone 신부의 생명보호 묵상)

넷째 주 일요일

오후 3시: 에큐메니컬 기도모임, 믿지 않는 이를 위한 기도

목격 증인 모란이 참석하면 묵주기도 동안 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 모임에서 **하나 되신 성심의 축복, 거룩한 사랑의 축복, 신성한 사랑의 축복, 복되신 성모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들과 은총들은 다른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을 정기 기도모임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샘과 성지, 눈물의 호수, 천사들의 호수, 승리의 별판, 십자가의 길 등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기도 신청

기도 지향과 청원을 우편, 전화, 이메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되는 청원, 기도문들은 성지 내 기도 센터에 있는 **‘복되신 성모님의 축복 지점’**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진심의 기도를 받습니다.

전화 신청: 440 327-8039 (영어); 440 327-4301 (한국어)
(이 전화에 남기십시오. 전화 회답은 없습니다.)

이메일 신청: prayers@holylove.org

우편 신청: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d.
Elyria, OH 44039